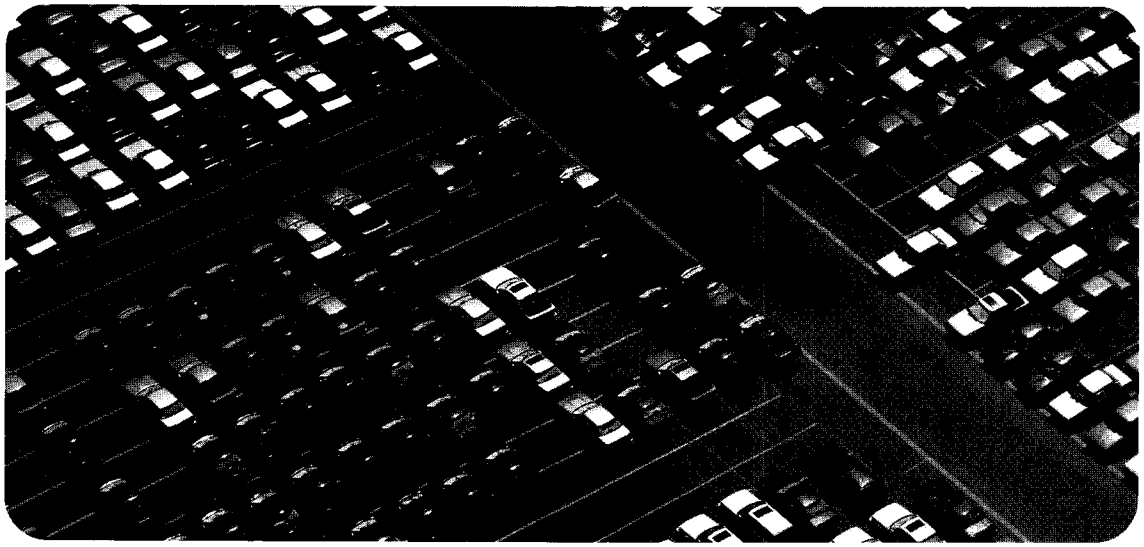

# 2009년 자동차산업 전망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는 올해 2월 자동차산업에 대한 수정전망을 발표하였으며, 본고는 동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 1. 세계 자동차수요 전망

09년 세계 자동차수요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여파가 미국, 서유럽 등선진국은 물론 동유럽, 중남미지역 등 신흥시장까지 확산되어 전년대비 7.4% 감소한 65,446천대가 전망된다.

지역별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시장은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전년대비 12.2% 감소한 14,348천대 예상되는데, 특히 미국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위축, 할부금융시장 경색, 리스판매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3.3% 감소한 11,772천대로 2년 연속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서유럽시장은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경색, 실업률 증가로 민간소비가 위축되어 전년대비 11.9% 감소한 13,917천대로 부진할 전망이며, 특히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는 금융불안, 물가상승, 실업률 증가로 인한 구매력 감소로 상대적으로 감소세가 클 전망이다.

아시아 · 태평양시장은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시장의 감소세 전환과 인도네시아, 말레지아 등의 수요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3.0% 감소한 20,709천대 예상되며, 특히 일본시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과 가계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한 5,082천대로 4년 연속 감소세가 예상되며, 08년 전년대비 7.8%의 증가세를 보인 중국시장은 09년에는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속에 주식, 부동산가치 하락, 수출둔화 등으로 전년대비 2.8% 감소한 9,342천대가 전망된다. 한편 인도는 저가 신차 출시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할부시장의 경색을 초래하여 자동차판매는 전년대비 3.7% 감소한 2,026천대로 전망된다.

동유럽시장은 세계경제 침체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루마니아, 폴란드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12.1% 감소한 5,207천대가 전망된다. 동유럽 최대시장인 러시아는 글로벌 금융불안,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전년대비 14.2% 감소한 2,670천대로 대폭 감소를 보일 전망이다.

중남미시장도 미국 경기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수출부진, 금융시장 경색 등 경기불안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4.8% 감소한 4,165천대 가 전망되며, 중남미 최대시장인 브라질은 미국발 금융위기 영향으로 경기둔화, 할부금융축소, 수입차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4.0% 감소한 2,868천대가 전망된다.

〈09년 세계 자동차 수요전망 〉

(단위 : 천대,%)

| 구 분 | 07년 | 08년(추정) | | 09년(전망) | |
|---|---|---|---|---|---|
| 총 계 | 73,163 | 70,655 | (▼3.4) | 65,446 | (▼7.4) |
| 북미 | 19,340 | 16,335 | (▼15.5) | 14,348 | (▼12.2) |
| - 미국 | 16,512 | 13,576 | (▼17.8) | 11,772 | (▼13.3) |
| 서 유 럽 | 17,232 | 15,796 | (▼8.3) | 13,917 | (▼11.9) |
| 아 · 태평양 | 20,772 | 21,352 | (2.8) | 20,709 | (▼3.0) |
| - 일본 | 5,305 | 5,119 | (▼3.5) | 5,082 | (▼0.7) |
| - 중국 | 8,913 | 9,611 | (7.8) | 9,342 | (▼2.8) |
| - 인도 | 2,048 | 2,103 | (2.7) | 2,026 | (▼3.7) |
| 동 유 럽 | 5,488 | 5,921 | (7.9) | 5,207 | (▼12.1) |
| 러 시 아 | 2,710 | 3,111 | (14.8) | 2,670 | (▼14.2) |
| 중 남 미 | 4,011 | 4,374 | (9.1) | 4,165 | (▼4.8) |

☞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J.D.Power,「Global Car & Truck Forecast」, '08.4Q

## 2. 국내 자동차산업 전망

(1) 총 괄

09년 국내 자동차생산은 내수경기 침체와 수출 감소로 전년대비 5.9% 감소한 3,600천대가 전망된다.
자동차 내수는 글로벌 경기침체, 자산가격 하락,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자동차할부금융 경색 등으로 전년대비 9.1% 감소한 1,050천대가 예상되며, 수출은 국산차의 가격경쟁력 상승 및 품질개선, 수출전략차종 투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선진국은 물론 신흥시장까지 확산되어 전년대비 5.0% 감소한 2,550천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수입차 판매는 일본 소형차 등 다양한 모델 출시, 전시장 및A/S센터 확충 등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상승과 리스금융 위축으로 전년대비 7.7% 감소한 70천대가 될 전망이다.

〈09년 자동차산업 전망〉

(단위 :천대, 십억불, %)

| 구 분 | 07년 | | 08년 | | 09년(전망) | |
|---|---|---|---|---|---|---|
| 생 산 | 4,086 | (6.4) | 3,827 | (▼6.4) | 3,600 | (▼5.9) |
| 국내판매 | 1,219 | (4.7) | 1,154 | (▼5.3) | 1,050 | (▼9.1) |
| 수 출 | 2,847 | (7.5) | 2,684 | (▼5.7) | 2,550 | (▼5.0) |
| [수출액] | [49.7] | (15.1) | [49.0] | (▼1.5) | [46.5] | (▼5.1) |
| 수입 | 64 | (54.3) | 76 | (18.2) | 70 | (▼7.7) |

☞ 주 : (1)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2) 국내판매는 국산차 기준, 수출은 통관기준, 수출액은 부품 포함, 수입은 신규등록 기준

(2) 내 수

09년 내수는 국내유가 안정세, 다양한 신모델 출시, 차량 노후화에 따른 대체수요 발생이 예상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고용불안,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대비 9.1% 감소한 1,050천대가 예상된다.
09년 승용차 부문은 8.5% 감소한 877천대, 상용차는 11.6% 감소한 173천대로 상대적으로 상용차의 감소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는 노후차량 누적으로 잠재된 대체수요 증가와 13개 차종의 신차출시로 인한 신차효과가 기대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할부금융 경색으로 전년대비 8.5% 감소한 877천

대가 전망되며, 상용차는 신정부의 개발계획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 부진, 비주거용 건설의 둔화로 건설투자는 1.3% 증가에 그쳐 대형트럭 판매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계형자영업자, 소규모서비스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다마스, 라보 등경상용차는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용차는 전년대비 11.6% 감소한 173천대가 예상된다. 한편,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가 0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미분양물량 확대와 내수경기 하락 등은 주택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트럭 판매는 전년대비 1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09년 자동차 차종별 국내판매 전망〉

(단위: 천대, %)

| 구 분 | 07년 | | 08년 | | 09년(전망) | | 증가율 | |
|---|---|---|---|---|---|---|---|---|
| | | | | | | | 08년/07년 | 09년/08년 |
| 총 계 | 1,219 | (100) | 1,154 | (100) | 1,050 | (100) | ▼5.3 | ▼9.1 |
| 승 용 차 | 986 | (80.9) | 959 | (83.1) | 877 | (83.5) | ▼2.8 | ▼8.5 |
| 상 용 차 | 233 | (19.1) | 196 | (16.9) | 173 | (16.5) | ▼16.0 | ▼11.6 |
| - 버스 | 70 | (5.8) | 62 | (5.4) | 56 | (5.4) | ▼11.1 | ▼9.9 |
| - 트럭 | 163 | (13.3) | 133 | (11.5) | 117 | (11.1) | ▼18.1 | ▼12.3 |

☞ 주 : ( )내는 비중

한편, 09년 수입차 내수판매는 전년대비 7.7% 감소한 70천대가 예상된다. 08년에 수입차의 내수판매는 국산차의 마이너스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8.2% 증가한 76천대를 기록하여 내수시장 점유율이 6.2%에 달하였다. 09년에는 도요타, 닛산, 미쓰비시등 일본 대중브랜드 진출과 다양한 신모델 출시, 수입딜러들의 전시장 및A/S센터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상승,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할부 및 리스시장위축으로 전년대비 7.7%의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수입차의 시장잠식이 지속되고, 특히 3,000cc이상 고급차에서 상당부분 잠식이 예상된다.

(3) 수 출

09년 자동차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미국, 서유럽 등선진국은 물론 동유럽, 중남미 등신흥시장까지 확산되어 전년대비 5.0% 감소한 2,550천대가 예상된다. 09년 수출여건은 전반적인 세계자동차 판매 감소와 금융위기로 인한 자동차금융경색이 수출수요를 크게 감소시킬 전망이다.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은 08년 17.8% 감소에 이어 09년도에도 13.3% 감소할 전망이며, 서유럽시장도 '08년 8.3% 감소에 이어 09년도에도 11.9% 감소할 전망이다.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그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던 동유럽, 남미시장도 09년도에는 각각 12.1%, 4.8% 감소로 반전되어 전세계 자동차수요가 7.4% 감소할 전망이다. 일본 및 유럽업체의 중소형차 추가투입 및 신흥국 시장용 저가차 개발강화로 국산차와의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미국, 유럽시장의 소형차 비중확대와 원/달러 환율안정 및 엔고로 인한 국산차의 가격경쟁력 제고는 자동차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산차의 품질 및 브랜드가치 상승, 국산차의 소비자만족도 개선과 수출전략차종 투입 확대, 신흥시장 판매망 확충 등도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불안이 해소되고 자동차시장이 회복세로 전환될 경우 국산차 수출은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다.

09년 자동차 수출액은 완성차와 부품수출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5.1% 감소한 465억불 이 전망 된다. 09년 완성차 수출액은 4.4% 감소한 335억불에 그칠 전망이며, 부품은 KD수출 감소와 해외 주요업체감산에 따른 부품공급량 축소 등으로 전년대비 6.8% 감소한 130억불이 전망된다. 완성차의 평균수출가격은 RV와중대형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의 수출증가로 05년 10,411불에서 08년 11,900불로 매년 평균수출가격이 높아졌으나 09년에는 소형차 수출비중이 늘어나 평균수출가격은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09년 차종별 자동차수출 전망〉

(단위 : 천대, 십억불, %)

| 구 분 | 07년 | | 08년 | | 09년(전망) | | 증가율 | |
|---|---|---|---|---|---|---|---|---|
| | | | | | | | 08년/07년 | 09년/08년 |
| 수 출 | 2,847 | (100) | 2,684 | (100) | 2,550 | (100) | ▼5.7 | ▼5.0 |
| 승 용 차 | 2,719 | (95.5) | 2,509 | (93.5) | 2,379 | (93.3) | ▼7.7 | ▼5.2 |
| 상 용 차 | 129 | (4.5) | 175 | (6.5) | 171 | (6.7) | 36.1 | ▼2.4 |
| - 버스 | 39 | (1.4) | 63 | (2.3) | 59 | (2.3) | 60.8 | ▼6.4 |
| - 트럭 | 90 | (3.1) | 112 | (4.2) | 112 | (4.4) | 25.4 | ▼0.2 |
| 수출금액 | | 49.7 | | 49.0 | | 46.5 | ▼1.5 | ▼5.1 |

☞ 주 : ( )내는 비중

지역별 수출 전망을 보면, 수출비중에 있어 중동, 아시아 지역은 증가하고, 북미와 서유럽은 감소가 예상된다. 09년 대북미 수출은 미국시장의 2년 연속 감소와 캐나다, 멕시코시장의 감소 그리고 금융조건의 악화로 전년대비 8.5% 감소한 701천대가 전망(수출비중 27.5%)된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수출은 현대 i30cw, 기아 쏘울 등 소형차 중심의 신차투입이 있으나 총수요 감소와 기아 현지공장 추가 가동 등으로 전년대비 10.5% 감소한 536천대(수출비중 21.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유럽 수출은 금융시장 및 경제상황 악화로 수요 감소, 일부국가 $CO_2$세제 도입, 기아의 슬로바키아공장에 이어 현대의 체코공장 가동 등으로 전년비 17.6% 감소한 291천대(수출비중 11.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유럽 수출은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서유럽의 경기침체 확산에 따라 전반적인 자동차수요 감소와 금융위기에 있는 일부국가(우크라이나, 헝가리)로의 수출이 감소되어 전년비 3.6% 감소한 449천대(수출비중 17.6%)가 예상된다. 오일머니 유입으로 그동안 급증세를 보였던 대중동수출은 사우디, UAE, 이집트, 시리아 등을 중심으로 6.6% 증가로 증

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며, 중남미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이 감소세를 보여 전년대비 3.5% 감소한 281천대가 예상된다.

〈09년 지역별 자동차 수출 전망〉

(단위 : 천대, %)

| 구 분 | 07년 | | 08년 | | 09년(전망) | | 증가율 | |
|---|---|---|---|---|---|---|---|---|
| | | | | | | | 08년/07년 | 09년/08년 |
| 총 계 | 2848 | 100 | 2684 | 100 | 2550 | 100 | ▼5.7 | ▼5.0 |
| 북 미 | 835 | 29.3 | 767 | 28.6 | 701 | 27.5 | ▼8.2 | ▼8.5 |
| - 미국 | 668 | 23.5 | 598 | 22.3 | 536 | 21.0 | ▼10.5 | ▼10.5 |
| 동유럽 | 447 | 15.7 | 465 | 17.3 | 449 | 17.6 | 4.0 | ▼3.6 |
| 중 동 | 329 | 11.6 | 419 | 15.6 | 446 | 17.5 | 27.3 | 6.6 |
| 서유럽 | 550 | 19.3 | 353 | 13.1 | 291 | 11.4 | ▼35.8 | ▼17.6 |
| 중남미 | 301 | 10.6 | 291 | 10.8 | 281 | 11.0 | ▼3.4 | ▼3.5 |
| 아프리카 | 177 | 6.2 | 181 | 6.7 | 179 | 7.0 | 2.2 | ▼1.4 |
| 태평양 | 118 | 4.2 | 104 | 3.9 | 97 | 3.8 | ▼11.7 | ▼7.3 |
| 아시아 | 90 | 3.2 | 104 | 3.9 | 107 | 4.2 | 16. | 12.9 |

☞ 주 : ( )내는 비중

아시아지역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2.9%의 소폭 증가세가 예상되며, 태평양지역은 최대시장인 호주, 뉴질랜드로의 수출 감소로 전년대비 7.3% 감소한 97천대가 예상된다.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09.2월〉